

21개사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하위'

공표대상 133개 기업중 25곳 '최우수' · 41곳 '우수'

한국이쿠르트, 홈플러스, 오리온 하이트진로 등 21개 기업이 2015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 41차 동반성장위원회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하는 이행 실적 평가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하는 체감 평가 결과를 합산한 점수다. 동반성장지수는 지난 2011년부터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 4가지 등급으로 발표됐다.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는 공표대상 133개 대기업 중 '최우수'가 25개사, '우수'가 41개사, '양호'가 46개사, '보통'이 21개사로 분류됐다.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 25개사는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CJ제일제당 ▲KCC 등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네이

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백화점 ▲롯데제과 ▲롯데푸드 ▲르노삼성자동차 ▲만도 ▲삼성물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DI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등 41개사다.

'양호' 등급을 받은 46개 기업에는 ▲경신 ▲계룡건설 ▲남양유업 ▲농협유업 ▲대덕전자 ▲대우건설 ▲대한항공 ▲동원F&B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매일유업 ▲빙그레 ▲삼성물산(패션) 등이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기업은 ▲금호석유화학 ▲다스 ▲대우조선해양 ▲덕양산업 ▲부영주택 ▲삼립식품 ▲삼양사 ▲오리온 ▲지멘스 ▲코오롱인더스트리 ▲하이트진로 ▲한국이쿠르트 ▲한솔테크닉스 ▲홈플러스 등 21개사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한 기업 109개 기업 중 등급이 오른 기업은 27개사로 나타났으며 두단계 이상 동반성장지수가 오른 기업은 1개사, 한 단계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26개업체로 조사됐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는 82.3점으로 지난해 79.4점보다 2.9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공정위 하도급분야 서면실사조사가 1년간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을 통해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기업에 사업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도 공공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때 최우수 등급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하며 향후 1년동안 지수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최우수' 등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 종합화학, SK 텔레콤, 기아자동차, 코웨이, 현대자동차 등이다. /안진수 기자

신보 매출채권보험 가입증가

전년동기대비 21% ↑

글로벌경기 침체 장기화로 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채권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올해 상반기 신용보증기금이 하 신보이 운영중에 있는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신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전남·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의 매출채권 보험 가입 기업은 589개사(금액기준 6,413억원)로 전년도 상반기 487개(금액기준 5,968억원) 대비 21%나 증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판매한 후 취득한 매출채권(받을어음 또는 외상배

출금)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보 주동북 광주보험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매출채권보험 가입 증가는 매출채권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거래처 부실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식 변화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호남지역 12개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062-607-9103으로 가능하다. /정영수 기자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 증가

전년보다 39곳 늘어

지난해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년보다 39곳 증가한 327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외부감사 대상기업 2만4392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한계기업은 3278곳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비율은 100%를 밑돌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보면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해운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지난해 기준 18.6%로 2010년에 비해 9.8%포인트 상승했다.

동기간 조선업은 8.9%포인트 오른 14.7%, 철강업은 7.7%포인트 상승한 12.3%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13.7%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15.0%였다.

한계기업의 매출영업이익률은 -0% 내외에서 움직이며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도 전체의 50.8%로 절반을 웃돌았다.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기업의 비중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32.4%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계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액은 118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특수은행이 73조 2000억원으로 61.7%를 차지했고 일반은행은 45조4000억원을 보유했다.

5대 취약 업종(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에 대한 신용공여는 70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특수은행이 51조2000억원, 일반은행은 19조1000억원을 보유했다.

한은은 "이들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영수 기자

중소기업계, 백화점 거래관행 개선방안 '환영'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백화점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50%에 근접하는 백화점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4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과 '할인행사시 판매수수료 인하조치' 등은 과거 선례가 없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백화점 외에 대형마트 및 홈쇼핑 온라인 쇼핑물 분야로 확산돼야 한다"며 "납품 중소기업들이 물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정한 생태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의 뒷받침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진수 기자

홈플러스, 천원의 행복 행사개최

홈플러스가 여름철 꼭 필요한 대표 상품을 선정해 단돈 1000원에 판매하는 '천원의 행복' 행사를 오는 13일까지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천원으로 여름 나기'라는 테마 아래 '입맛 돋우는 신맛 대전', '1년 축적식품 기획전', '제과/음료 특가', '생활용품 페스티벌' 등의 카테고리 약 2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먼저 무더운 날씨로 입맛이 떨어질 수 있는 여름,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상큼한 신맛 상품을 준비했다. 비빔면, 초무침 등 새콤한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오뚜기 양조식초(1.5L)', 사과식초(500ml)와 롯데칠성 스카시 50%주스(1.5L/종류별), '서울F&B 패밀리요구르트(700ml)' 등 시원한 음료를 비롯해 '하리보 젤리 5종(골드베렌, 사우어폼즈, 해피콜라, 트로피푸르트/각 100g, 골드베렌 사프트/85g)'을 준비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줄 즉석식품도 마련. 오뚜기 그대로카레, 짜장(각 200g/종류별), 옛날 유개장(300g), 사골곰탕(350g), 해찬들 그대로 끓여먹는 된장찌개(180g), 유동떡볶이(280g)를 준비했으며, 장마철 생가는 부침개 재료인 오뚜기 부침가루(500g), 해표 식용유(250ml)도 판매한다. /안진수 기자

롯데하이마트 7월 전국 동시세일

롯데하이마트가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동시세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국의 440여개 하이마트 매장과 하이마트 쇼핑몰(www.himart.co.kr)에서 주차별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제습기, 정수기, 휴대폰 등 각종 품목을 행사 제품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판매한다. 이 기간 경품 및 경매 이벤트, 캐시백 및 사은품 증정 등 풍성한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는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을 맞아 행사 첫해부터 1일부터 '에어컨 브랜드 기획전'을 열고 총 1000억원 규모의 에어컨 제품을 '베스트 상품전', '위클리 특가전', '초특가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선보인다. 행사 제품은 80만원대에서부터 600만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6평형대 벽걸이 에어컨에서부터 25평형 무인원(벽걸이형+스탠드형)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냉방 효과와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제습기와 선풍기도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행사 제품에 따라 최대 30%까지 특가 판매한다. 위닉스 제습기(16L)를 29만 9000원에 판매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반복사용 제습제를 증정한다. 또 리모콘 선풍기와 일관 선풍기를 각각 3만 8000원에, 2만 8000원에 한정수량 판매한다. /안진수 기자

장수한우,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입점

A++이상 등급 실명제 판매

전국 최고의 품질과 브랜드인지를 자랑하는 장수한우가 롯데 프리미엄푸드마켓에 입점한다.

장수한우는 지난달 30일 개장한 롯데 프리미엄푸드마켓 도곡점에 장수한우관을 마련하고 품질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장수한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롯데 프리미엄푸드마켓 도곡점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의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한우만을 실명제로 판매하며 이번 장수한우의 롯데 프리미엄푸드마켓 입점은 가족 입식, 사육환경, 사양 관리 등 현장 점검과 엄격한 품질 평가를 거쳐 이뤄낸 쾌거로 프리미엄관 입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장수한우의 우



롯데 프리미엄푸드마켓 도곡점에서는 장수한우관을 특별 구성했다.

수성이 입증됐다.

특히 장수한우관을 특별 구성해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장수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관 매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강남 도곡점을 시작으로 위례중양점, 강남 세곡점 등 점진적으로 10개의 프리미엄관에 장수한우를 입점할 계획이다.

한편 장수한우는 30일 오픈 이벤트를 행사로 장수한우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장수산 블루베리를 증정하는 등 푸짐한 이벤트를 실시해 성황을 이뤘다. /정수=고관호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